

일제 식민지 도시공간의 근대적 재편성 비교연구:

한국 부산과 중국 대련을 중심으로

이상균 (한국학중앙연구원)

1. 문제제기

본 연구는 19세기말부터 서구 및 일본 제국주의의 개방 압력 이후 식민화 과정 속에서 한국의 부산과 중국의 대련이 어떠한 상이한 길을 걷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서구의 아시아 국가에 대한 식민지 경영과 일본의 식민지 경영은 이미 역사적으로 지배국과 피지배국 간의 관계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한 점에서 일본이 제국들과의 경쟁에 뛰어들기 전에 한국 및 중국과 관계를 맺는 방식은 이후 식민지 경영의 특수성으로 반영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서구 사회의 근대화는 점진적인 자기 변혁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지만, 일본 제국주의의 특징은 18세기 이후 일본이 서구의 근대 문물을 끊임없이 수입하면서 본국의 근대화 과정을 진행함과 동시에 제국들의 식민지 경쟁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특수성을 띤다. 더군다나 일본의 근대화 이전 동북아시아 국제 질서가 중국을 중심으로 부각이 되었지만 일본의 제국주의화는 기존 이 지역의 국제 관계의 변화를 급격히 가져왔다.¹⁾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한국 부산과 중국 대련 두 도시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근대 항만 도시로 개발되고 있는데 자원 및 인구의 왕래가 도시의 주요 기능으로 부과되고 있었다. 이는 일본이 산업 자본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이질적인 피지배 토착 공간에 도시를 건설함으로써 일본이 구상한 산업 자본주의 틀 속으로 재편성함을 의미한다. 이렇게 외세를 통한 근대적 도시 공간의 재편성은 다양한 수준에서 토착 사회의 사회적 변화를 수반하였다.

하지만 조선 왕조가 쇠퇴하고 일본이 모든 통치 기구를 장악하였던 부산의 상황과 청 왕조 이후 중국 내부에서 공산당과 국민당의 갈등으로 그 판도가 바뀌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대련의 상황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일본의 두 지역에 대한 대응에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일본이라는 동일한 제국에 의해 근대적 항구 도시로 재편성된 부산과 대련의 식민화 맥락이 두 사회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식민 정부의 공간 재편성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배민족과 피지배민족의 관계 양상도 차이를 보이고

1) 19세기 서구로부터의 강제적 개항 이전의 동아시아 국제 질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조공 외교’로 중국과 관계를 맺는 ‘오랑캐’ 나라들은 중국에 조공을 함으로써 그때마다 지배와 피지배 관계를 확인해 가는 것이다. ‘조공 외교’의 특징은 조공을 하기만 하면 중국 본국으로부터 자립된 형태의,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정치적 통치를 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小森陽一 2002). 반면 서구 세력이 동아시아에 진출하면서 서구 열강 국가 시스템을 기준으로 한 ‘만국공법’에 기초한 조약 외교의 논리가 기존의 ‘조공 외교’ 질서를 파괴하면서 동아시아의 국제 관계를 서구의 외교 논리 속으로 포함되게 만들었다.

있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부산과 대련의 식민지화를 통한 근대화 과정을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공간구조상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일본 정부의 도시 개발 과정에서 나타나는 두 도시에서의 특수성을 살펴보고, 기존 전통 사회의 공간 위계가 식민 정부의 타율적 도시 공간 위계로 전환되면서 토착 사회의 질적인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2. 식민지화 맥락 검토

1) 선행 연구 검토

동아시아에서 일본은 이미 오랜 기간 동안 한국 및 중국과 역사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었다. 하지만 서구 제국들이 한국이나 중국과 접촉이 일어났을 때 그 문화적인 충격은 강도가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인접해 있던 서구보다 문화적인 이질성이 적은 일본의 식민지 경영은 그러한 측면에서 서구 식민지 경영과도 질적인 차이를 내포하고 있다. 가시적인 예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일본의 패전 이후 한국 및 중국에서 일본인들이 만든 신사는 당장에 폐지가 되었던 반면, 서구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에서 탈 식민화 이후 교회는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왜 그럴까? 이것은 필자가 보기에 제국과 피 식민국가가 맺는 전통적인 관계나 서로를 바라보는 인식의 틀 차이, 식민지 통치 방식의 차이 등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로 다른 영토에 대한 식민지화는 기존 토착 사회의 이질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제국주의 국가와 식민지 토착 사회와의 관계가 서로 다른 맥락으로 전개되는 경향이 있다. 동아시아 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식민화 현상에 대해서 고찰할 때 필자가 보기에 2가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크게는 전지구적 차원에서 서구와 일본 식민 통치의 비교 관점에서 일본 식민 통치의 특수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둘째, 같은 일본의 통제 하에서 서로 다른 사회가 어떤 관계로 설정이 되고 식민화가 이루어지는지 식민 토착사회의 상황적 맥락에 대하여 고려하는 것이다. 먼저, 식민 통치에 대한 양식과 관련된 연구를 보면 다음과 같이 서술을 하고 있다.

노영순은 베트남에 대한 프랑스 식민주의의 특징을 협력주의로 설명하고 있는데, 현재의 베트남 남부는 코친차이나로 프랑스 관리의 지배하에 관리되었고, 베트남 중부 안남, 베트남 북부 퉁킹 등은 보호국체제로 이루어졌다(노영순 2004). 프랑스 식민주의는 일정한 부분 베트남 전통 관료와 응우옌 조정을 활용함으로써 민족주의 세력이 급진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강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식민지배의 강도가 점차 변화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최정수는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식민 지배를 타 열강과 달리 초기부터 자치권을 약속하고 끝까지 지킨 사례로 언급하고 있다(최정수 2004). 이러한 미국의 필리핀에 대한 자치정책은 미국의 세계안보전략의 논리와 관련해서 자치지역 확대가 미국에 유리하다는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주장하였다.

신주백은 일본의 식민 정책은 동화 정책으로 민족동화와 문명동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민족동화

는 지배자로서 피지배자들에게 평등화, 동일화를 직접 내세운 경우를 말하며, 문명동화는 우월한 문명을 통해 일본화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한다(신주백 2004). 이러한 일본의 조선 및 대만에 대한 동화정책은 오히려 피지배 민족의 강한 문화 의식으로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각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 경영은 서로 차이가 난다. 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일까? 그것은 지배 국가들의 식민 정책이 자국 상황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차이가 원인이 되었으며 식민 지역의 저항, 문화적 충돌과 같은 상황도 고려의 대상이 되었다. 서구 식민주의 기본 노선인 동화주의(assimilationism)를 일본도 채택하고 있지만 식민 사회가 인종적 유사성을 지닌 유교 및 한자 문화권이라는 점, 일본 본국과 식민 지역이 서로 인접해 있는 점 등으로 인하여 프랑스처럼 식민 사회의 전통적 지배 질서를 인정한다든지, 미국처럼 자치권을 부여하고 이후 독립을 약속하는 것과 같은 정책은 채택되기 힘들었다. 게다가 일본 식민지의 지리적 인접성은 식민지 경영을 한 단계로 나아가 국가 영토 확장이라는 측면까지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서구의 식민지 경영과 질적인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 내부 국가들 간 제국-식민 관계의 형성의 특수성에 대해서 하시야 히로시는 서구의 식민지는 본국과 이질적이지만 일본의 식민지는 ‘동질성’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지적한다(하시야 2004). 하시야는 피터 두스(Peter Duus)가 분석한 일본의 ‘상상의 제국’은 (1) 일본을 서구 제국주의의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의식, (2) 피지배 민족인 아시아를 일본과 ‘같은 공동체의 구성원’이라고 생각하는 의식, (3) 제국주의를 인류의 진보의 도구로 간주하는 경향이라는, 세 가지 점이라고 언급한다.

일본 제국주의의 특징은 서구 식민지 통치와 비교를 해보았을 때 그 변별적 차이들이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일본 제국주의가 경영하고 있는 각 식민 지역 내부의 차이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일제시기 한국, 대만, 중국 만주 지역에서 식민 통치와 더불어 나타나고 있는 상호규정 관계가 토착 사회의 변화를 어떻게 만들고 있고 1945년 전후 동아시아 사회의 성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최근 연구에서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일본 제국주의 하에서 나타나고 있는 한국 및 대만의 경제 변동에 대한 것이다. 호리 가즈오에 따르면 기존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연구의 맹점은 첫째, 각 국별로 제한된 틀 속에서 개별적인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는 점이다(호리 2006). 오히려 호리 가즈오는 넓은 범위에서의 상호 관계를 통해 일본 자본주의의 틀로 식민 지역이 재편성되는 과정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둘째, 일본, 조선, 대만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정치체계의 단절을 경험하고 있어서 실제 이상으로 과거와의 단절을 강조해왔다는 점이다. 그래서 그는 정치체계의 단절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역사적 경험이 일본 뿐 만 아니라 과거 식민 사회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세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최근 선행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전지구적 차원에서 제국주의와 식민지에 대한 비교 연구가 현재의 국제 질서와 각 지역의 근대화 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식민의 역사가 민족주의 입장에서 들추어내기 싫은 집단의 기억이지만 현대 사회의 국제 질서 뿐 만 아니라, 탈식민 이후 한 국가의 변화를 추적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시점으로 여겨진다. 또한 연구자들은 일본 제국주의의 특수성과 근대 시기 동아시아 지역의 재편성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동아시아 지형에서 식민 경험이 각 지역에서 맥락화 되는 방식 뿐 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소홀했던 일제 식민지 재편성에서 나타나는 동아시아 지역의 유

기적 관계에 대한 전체적인 상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일본 자본주의에 따른 식민 지역의 근대적 재편성 과정에서 한국, 대만, 만주 지역 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은 근대적인 도시의 형성이다. 도시의 형성은 농업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의 변화를 보여주는 사회 공간상의 큰 변화이다. 도로 및 철도, 콘크리트 복층 건물, 자동차, 상점, 공장 등은 식민 지역의 이전 토착 공간을 점유하는 제국의 힘의 상징이자 토착 사회의 변화를 가장 빠르게 느낄 수 있는 공간적 배치이다. 그렇다면 일본 제국의 대동아 공영권 식민 기획이라는 큰 틀 속에서 한국과 중국 대륙의 대표적인 개항 도시로 조성된 부산과 대련은 어떠한 방식으로 근대적 재편성 과정을 겪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2) 두 도시의 식민화 맥락

19세기 중반부터 한국이나 중국이 기존의 동아시아 국제질서에서 점차 서구로부터 도전을 받아왔다. 당시 동아시아에 영향을 끼친 서양의 주요 세력으로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미국이 있었으며 일본은 1853년 미국의 개국 요구 이후 1867년 메이지유신(明治維新)이 국내에 단행되면서 제국주의의 경쟁에 19세기 말부터 참가하는 양상을 띠었다. 특히 당시 제국 열강들과의 교류는 각국의 근대 자본주의 재편성 과정에서 동아시아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움직임이 세계적인 수요와 공급과 점차 연동 되면서 개항장을 중심으로 중국이나 한국에서 먼저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중국은 1842년을 영국과의 조약을 기점으로 연해의 상해, 영파, 복주, 하문, 광주 등 5개 지역을 중심으로 외부 세계에 개항이 되기 시작하였고 점차 지역이 확대되어 갔다. 한국의 경우 1876년 일본과 강화도조약을 맺으면서 부산, 원산, 인천을 중심으로 개항이 이루어졌고 미국과 1882년에 수호통상조약을 맺으면서 서양에도 개방되기 시작하였다. 개항장은 외국인과 그 나라의 토착인이 공존하는 도시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19세기에 특히 주목할 점은 일본이 명치유신 이후 근대 국가의 모습으로 정비되고 있다는 점이다. 당시 일본 국내의 변화는 메이지 신정부 설립 이후 헌법 제정, 국민 교육, 신분제 철폐, 관영 공장의 확대 등 각 부문별로 근대 국가의 성격으로 탈바꿈하였다. 전신, 우편, 화폐, 철도 교통 등 근대 제도개혁이 이루어지고 근대 산업이 궤도에 오르면서 한국, 중국, 대만 등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국제적 분업관계를 점차적으로 강화해나갔다. 이러한 일본의 근대 국가로의 성장은 한국 및 중국과의 전통적 관계 설정에서 벗어나 일본 중심의 산업 자본주의의 근대적 재편성을 주변 지역을 연동시켜 만들어 가고 있었다.

시기적으로 부산의 개항이 대련보다 앞섰는데, 1876년 강화도조약 이후 부산은 일본전관거류지가 설정되었다. 부산이 일본과 맺고 있는 관계는 그 역사가 오래되었다. 최초로 한국이 일본에게 상업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왜관을 허용한 것은 조선 초기 1407년(태종 7년)이었고, 부산에는 1521년(중종 16년) 왜관이 설치된 이래로 지속해서 유지가 되었다. 명치유신 이후에 이루어진 부산의 일본전관거류지 설정은 근대적 형태의 국제 조약상의 설정으로 기존 왜관과는 차이가 크다. 인구 면에서도 1876년 1월 일본인 거주자가

82명에 불과했는데 거류지 설정이후 같은 해 12월 약 500명으로 증가하게 되었다(김의환 1973:32). 부산이 일본과 연관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것은 역사적으로 이미 오래된 일이었지만 조선의 동래부가 지역의 권력을 상실하고 일본 전관거류지를 중심으로 다시 권력이 재편되기 시작한 것은 바로 강화도 조약 이후의 일이다.

현재 중국 동북 삼성중에서 요녕성에 위치하고 있는 대련은 중국의 역사에서 변방에 속하는 지역으로 중국인의 인구분포도 상대적으로 희박한 지역이었다. 한반도의 경우 서구와의 직접적인 무력 충돌 없이 일본이 쉽게 그 권리를 인정받은 반면, 대련의 경우 러시아 남하 정책과 일본의 중국 진출이 서로 격돌하게 된 대표적인 공간이었다. 1894년 청일 전쟁 승리 이후 일본이 요동 반도를 할양받고자 하였지만 러시아, 프랑스, 독일의 공동 개입으로 좌절되었고 1898년 러시아가 이 지역을 조차지로 만들게 되었다. 이후 1904년 러일전쟁이 발생하기 전까지 대련은 '다르니 Dalny'라는 이름으로 러시아에 의해 근대 도시로 개발되고 있었다. 1905년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이후 대련은 도시 개발이 일본인에 의해 지속되어 항구 도시로 변모하게 되었다. 이전에 일본과 대련이 맺고 있는 특별한 역사적 관계가 거의 없었지만 이 시기부터 일본의 식민도시로 거듭나게 되었다.

부산과 대련은 일본이 주체가 되어서 전통 공간과 다른 근대적 도시 공간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이 두 도시가 항구라는 점이다. 근대 항만 도시의 건설은 새로운 자본주의적 세계관이 공간적으로 표현된 장소이다. 전통 사회에서 항구는 어업이나 간단한 물류 기능을 한 국가 내부에 제공하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내륙에 수로가 발달된 경우에는 굳이 바다를 통한 항만 시설이 큰 의미를 차지할 수 없었다. 그러나 전 세계 자본주의의 관점에서 제국의 식민지 원료 생산 활동과 시장 활동을 위해 근대적인 모습을 갖추게 된 항구는 국가 간의 교류의 중심으로 새로운 위상을 부여받게 되었다. 그리고 외부 세계와의 접촉이 가장 먼저 이루어지고 있는 항구는 그러한 점에서 이질적인 문화와 토착 문화가 경합하는 공간이 되었다. 그것은 항구를 매개로 외부의 이질적인 세력과 자국 세력의 새로운 사회적인 관계가 끊임없이 생산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항구 도시는 한 국가의 물류를 담당하는 상품 이동의 근거지로 경제적 역할이 주되게 강조되고 있지만, 근대 항구는 제국주의 세력의 관문으로써 민족의 이동, 상품의 이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관계가 항구 건설과 동시에 조성되고 있었다. 부산과 대련이 일본 본국과의 관계에서 물자와 사람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도시 기능상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일본 제국의 시선이 부산이나 대련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기존 지역 토착 사회의 사회적 맥락이 다르고 식민지 시기에도 한국 전체가 식민화되는데 반해서, 중국은 중앙 정치세력이 지속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일본 패전 이후 두 도시의 변화 과정 또한 해방 이후에 나타나는 각국의 특수성의 영향 하에서 서로 다른 도시 변화 과정을 겪게 된다.

3. 일제 도시공간의 정치

1) 부산 지역 공간의 재편성 과정



그림 1. 동래부지도 (규장각 소장: 1872년 지방도)

부산 지역은 조선 시대에 행정 중심인 동래읍성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었다. 역사적으로 부산 지역의 경우 일본과 인접하여 있었고, 조선 왕조의 입장에서 1544년(중종 39년)부터 일본인을 통제하고 회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산포에 왜관(倭館)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과거 부산 지역의 공간 편성의 상황은 1872년 지방도에 잘 나타나있다.

지도의 중심에 조선 중앙에서 설치한 동래읍성이 있다. 조선 시대 동래부 지도를 보면 이 지역의 특수성이 잘 드러나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군사적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이 가장 크게 눈에 띈다는 점이다. 18세기 말 지도로 보이는 경주도회 좌통지도(소장: 규장각)에 의하면 민호(民戶)가 8,283호(戶)로 기재되어 있고, 군사 및 행정을 분담하는 총 인구수가 12,066명에 달하고 있다. 부산 지역이 임진왜란이전부터 일본의 침략이 잦았기 때문에 왜적 방어 시설인 좌수영, 부산진, 다대진이 설치되어 있고, 왜관은 동래부 행정구역상 동평면의 해안을 끼고 산으로 둘러

싸인 고립된 작은 규모로 설치되어 있었다.)

조선 왕조에 의해 이 지역 전통 토착 공간의 모든 체계는 동래읍성을 중심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다. 왜관은 그야말로 일본인 상업 활동을 위해 설치가 되었고, 그 위상은 부산 지역에서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곳의 군사 관련 공간은 일본인에 대한 경계를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지역 공간의 구성에 대한 외부 세계의 영향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왜관은 부산에서 강화도 조약이 1876년에 체결되기 전까지 장소를 몇 번 옮기면서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왔다. 하지만 왜관이 설치되어 있던 시기와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 일본과의 관계는 질적으로 많은 차이가 나타난다. 이미 일본 내부에서 에도 막부에서 메이지 유신으로 정치적 개혁이 단행되고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확장이 나타나면서 외부세계에 대한 관심이 상업 교류 차원을 넘어서 당시 서구 열강들과 식민지 경쟁을 하게 되었다.)

2) 조선시대 후반기 동래부의 면은 읍내면, 남촌면, 사천면, 동평면, 동면, 서면, 북면으로 이루어져 있다(부산시사 1990:19).
 3) 이미 일본은 미국 페리 제독에 의해서 1854년 서구 세계에 시모다(下田)와 하코다테(箱館)가 개항 되었다. 1840년대 미국은 영국에 이어 세계 제 2의 면 공업국으로 일본 개항을 통해서 석탄과 물 그리고 식량을 공급받길 원하였기 때문이었다. 이후 네덜란드, 러시아, 영국, 프랑스와도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안세이(安政)' 5개국 조약은 외부세계에 대한 일본의 개방을 의미했다. 이와 동시에 일본 내부는 천왕을 중심으로 메이지 유신이 단행되면서 근대 국가 체제로 탈바꿈하게 되었다(小森陽一 2002).

왜관 위치	설치시대	존속기간	현위치
부산포	중종 39년(1544)	49년간	자성대 근방
(폐지)	임진·정유재란		
절영도	선조 36년(1603)	5년간	영도 대한조박공사 부근
두모포	선조 40년(1607)	71년간	수정동·고관일대
초량	숙종 4년(1678)	199년간	용두산 일대
일본전관거류지	고종 13년(1876)	35년간	용두산 일대

표 1. 부산왜관의 변천(1544~1910, 김의환(1973) 참고 구성)

과거 왜관이 설치되어 있었을 때, 부산 지역 전체에서 왜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인구 면에서나 다른 모든 면에서 미미한 실정이었다. 또한 이 지역 공간 편성의 주체는 조선인들로 고지도에서 보이는 것처럼 전체 공간은 조선의 전체 통치 제도와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거쳐 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산업 국가로 성장하면서, 1876년 강화도 조약을 조선과 맺은 이후 왜관은 일본인전관거류지로 변경이 되었다. 그리고 점차 일본인 거류지를 중심으로 부산 지역 공간의 성격은 전통 사회와 다른 양상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즉, 일본인 거류지를 중심으로 근대 항만 도시를 건설해 나가는 과정에서 동래부 지역 공간 주체였던 조선인들은 점차 소외되면서 전통 공간 이었던 동래읍성을 비롯한 조선이 설정한 공간의 힘은 사라져 갔다. 그리고 전통사회 지역의 중심 공간이 동래읍성이었다면 점차 일본인 거류지를 중심으로 개발된 지역이 식민화 이후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초기 조선과의 관계 속에서 철저하게 분리된 공간으로 미미했던 왜관은 그 장소의 역사성을 계기로 식민지화와 더불어 일본이라는 도시 공간의 주체에 의해서 중심부로 이동되고 있었다.

이렇게 일제가 일본인 거류지를 중심으로 항만 도시를 만들어 가면서 부산은 점차 외부 세계와의 교류가 중요한 도시의 기능으로 부각되었고 항만을 통한 상업도시로 그 면모를 갖추어 나갔다. 인기도 본격적인 개항이전 왜관에 머물던 일본인 수가 100명도 안되었지만, 식민화 과정 속에서 항만 도시로 개발되면서 한일 합병이 되던 1910년에 이르면 일본인 인구가 21,928명에 달하였다.

년도	호수	인구
1876	-	82
1880	402	2,066
1890	728	4,344
1900	1,082	6,067
1910	4,508	21,928

표 2. 부산 일본인 인구변화(김의환 1973:36)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일본인의 도시 공간 편성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을까? 부산이 강제적으로 조차지로 설정이 된 것은 1877년 1월 30일로 『부산구 조계조약』이 조인된 이후이다. 이를 계기로 일제는 점차 일본인 거주지 면적을 확장해 나갔다. 일제는 거류지 중심부에 일본 관리청을 두었고, 거류지 회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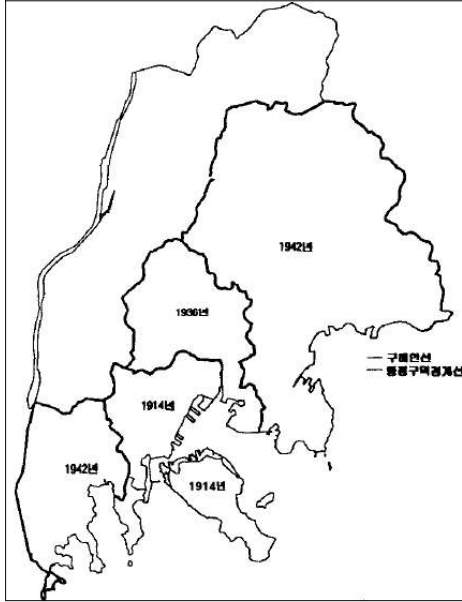


그림 2. 1914년 이후 행정 범위의 확장 (김철권 2002:30)

우편국, 은행, 상업회의소, 병원, 기타 회사 등의 근대 건축물을 만들었고, 수도와 도로 등과 같은 인프라를 구축해 나갔다. 1910년 한일 합병이 되기 전에 이미 일본인들은 거류지 주변 지역의 시구정리를 하고 명칭까지 대청정, 보수정과 같은 일본식으로 붙였다. 1914년 전국을 단위로 실시된 행정 구역 개편에서 일본인이 중심이 되어서 구성한 근대 도시 공간을 부산부(釜山府)로 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동래군으로 설정하였다.

행정 범위의 확장은 부산 지역을 점차 통합하고 있는 일제의 움직임을 보여준다. 과거 전관거류지를 중심으로 점차 주변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부산부의 영역은 점차 커져갔다. 1914년 부산부의 영역은 1936년 확장되고 다시 1942년에는 이전의 동래군의 많은 부분을 부산부에 포함시키게 되었다. 이 같은 변화는 부산 지역에 대한 일제의 정치적·행정적인 힘

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한편, 일제의 근대 도시 형성 과정과 함께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인과 일본인의 지역별 인구 이동 현황이다. 전통적으로 조선인이 주로 거주했던 동래읍성 부근에 일본인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었고, 일본인 거류지 중심 공간에 조선인이 유입도 늘어나고 있었다. 전통 사회에서 철저한 일본인과 조선인의 거주 구분은 점차 그 경계가 약해지면서 일제시기 근대 산업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일본인 자본가, 한국인 노동자의 관계 뿐 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관계들이 근대적 직업을 매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지역 \ 시대	1876년(개항당시)	1905년(러일전쟁직전)
초량	100 여호	400 여호
고관(두모포)	150 여호	200 여호
부산진	400 여호	300 여호

표 3. 조선인 가구의 이동 현황(김의환 1973:50)

연도	동래군		일본인	
	가구	인구	가구	인구
1908	2,144	9,310	64	230
1910	3,138	25,075	90	331
1925	17,331	89,325	658	2,672
1937	17,885	92,868	632	2,498

표 4. 1908-1937년 동래의 인구변화(김철권 2002:33)

부산에서 본격적인 도시계획 이전에 일제는 1901년부터 시구를 정비하고 일본인전관거류지 주변의 산을 깎아서 바다를 메우는 매축(埋築) 공사를 해나갔다. 부산의 최초의 도시계획수립은 1934년 제정된 조선총독부의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거하여 1937년에 만들어진 「부산시가지계획」으로 당시 인구 213,142명을 기준으로 목표연도 계획인구 40만 명을 예상하고 이루어졌다(박해양 2001:115). 이 당시 도시계획의 성격은 부산항을 일본, 만주, 중국, 남양을 연결하는 “대동아공영권”의 연결망 구축의 일부로 나타났다(김의환 1973:104).

부산에서 일제의 근대적 도시 편성과과정의 특징은 기존의 전통적인 토착인의 공간인 동래 읍성에서 벗어나서 역사적으로 일본과 관련이 있었던 왜관 공간을 중심으로 도시 개발을 하고 있는 점이다. 초기에 왜관은 조선 정부에 의해서 일본인을 활동을 제한된 공간으로 고립시키기 위해서 조선의 행정구역인 부산진으로부터 영선산(營繕山)을 끼고 설정을 하였다. 또한 왜관 주변에는 용두산(龍頭山)과 용미산(龍尾山)이 있어서 지리적으로 협소하고 활동에 제한이 많았다. 하지만 강화도 조약 이후에 나타나는 공간의 변화는 일제가 주체가 되어서 일본인 거류지를 중심으로 주변을 대대적으로 정비해나가고 있었다. 특히 거류지 주변의 산을 평탄화 시킴과 동시에 바다를 메워서 일본이 계획하고 있는 도시 공간을 넓혀 나가는 한편, 항만 시설을 정비하여 외부와의 연계성을 확장해 나갔다.

이러한 움직임은 부산 지역에서 기존 민족의 전통 공간을 흡수하는 것보다 민족 간 갈등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한일 합병 이후 근대적 시설물과 경제 활동을 일본이 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기존 토착 중심부인 동래에서 일본인이 구성한 일본인전관거류지 쪽으로 지역 중심부 이동이 나타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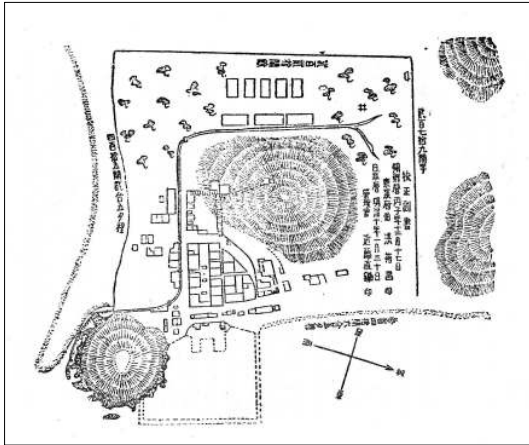


그림 3. 일본전관거류지 초기형태
(김의환 1973: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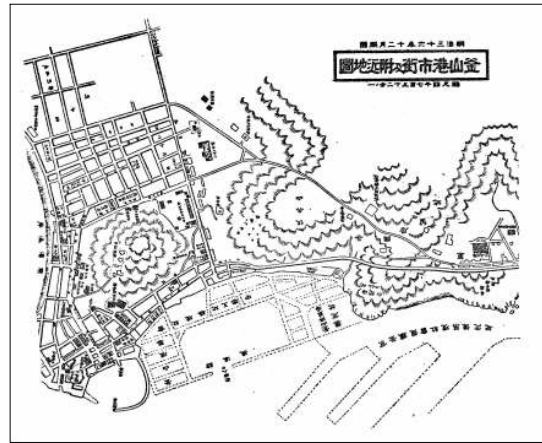


그림 4. 1903년 일본전관거류지와 주변
(김의환 1973: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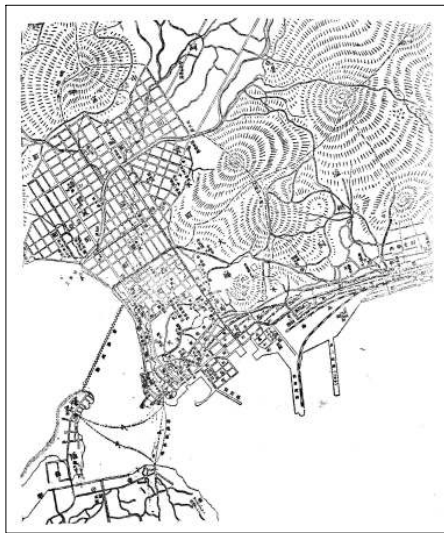


그림 5. 1917년 일본전관거류지와 주변
(김의환 1973: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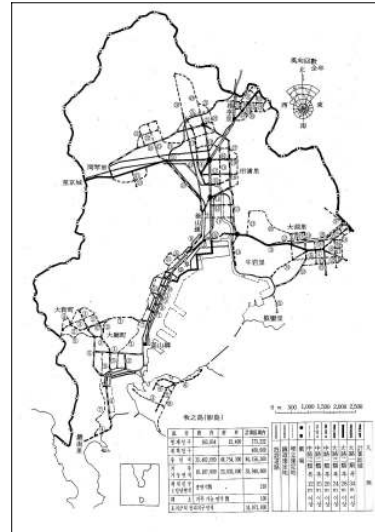


그림 6. 1937년 부산시가지 가로망
계획 (손정목 1990:460)

2) 대련 지역 공간의 재편성 과정

대련 지역의 경우 역사적으로 이 지역에 중국 전통 사회의 행정 조직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⁴⁾ 대련 지역에서 좀 떨어진 금주(金州)에 청나라 시기까지 지역을 관할하는 관청이 설치되어 있었다. 중국 동북 지역의 경우 역사상 여진족, 거란족, 만주족 등 민족 상황이 비교적 복잡했던 공간이었을 뿐 아니라, 정치

4) 과거에 대련은 여순이나 금주와 구분되는 대련만을 인접한 곳으로 현재의 대련 행정 구역과는 많은 차이가 난다. 현재 대련은 6개의 구, 4개의 현(시)로 구성되어 되어 있는 곳으로 과거의 금주나 여순을 모두 포함하는데 면적으로는 12,574km² 가 된다.

의 중심인 수도와는 멀리 떨어진 변방으로 인식되었다. 중국 역사상 대련 지역이 개발되기 시작한 것은 아편전쟁 이후 외세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이홍장이 중심이 되어 여순구(旅順口)와 대련만(大連灣)에 군항을 건설하고 북양해군의 군사 기지 역할을 하면서 부터이다. 중국에서 연해 지방의 급속한 발전은 외세와의 교류가 늘어가는 19세기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다. 기존의 전통 사회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이 시기부터 지리적으로 외부와의 연계가 연해 지역을 중심으로 확장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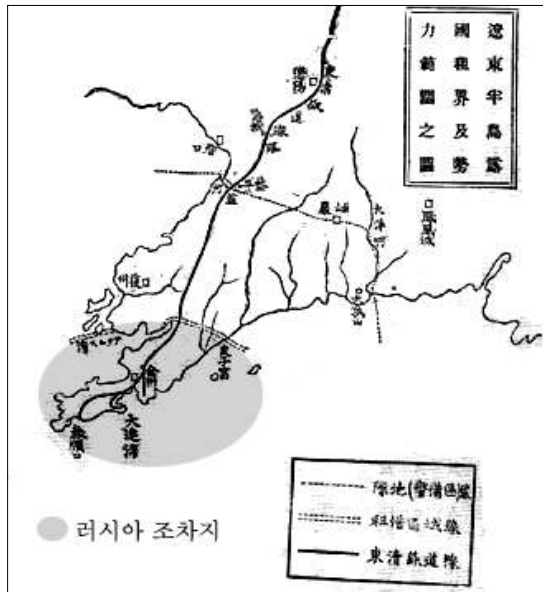


그림 7. 러시아 조차 영역(方军·王胜利 1999)

곳이었고, 여순은 청나라 후기 군항을 만들면서 중국인 인구가 늘어난 곳이었다.

러시아는 이 지역을 1898년부터 1904년까지 통치하면서 여순이나 금주와는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대련만 지역에 새로운 근대 도시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특히 대련만이 있는 지역에 중국의 전통 사회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러시아가 도시 계획을 실행하는데 민족 갈등의 요소는 적었다. 러시아가 집중적으로 건설하고 있는 대련 중심 지역은 청니와(靑泥洼)라고 불리는 작은 어촌이었는데, 당시 가구 수는 60여 가구에 불과한 곳이었다(우영만 2001:16).

중국이 서구의 압력으로 개항이 시작된 것은 19세기 중반부터였는데, 연해 지역을 중심으로 개항이 지속되고 있었다. 중국 남부 해안 지역에 주로 서구의 다양한 세력이 들어와 조약을 맺었다면 대련 지역의 경우 러시아와 일본이 경쟁하면서 이 지역을 점령하고자 하였다.

러시아는 1898년 요동반도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여순에 함대를 파견하고 대련만을 차지하고서 청나라와 「여대조차조약(旅大租借條約)」, 「속여대조차조약(續旅大租借條約)」을 맺고 25년간 통치하기로 합의하였다. 러시아는 이 지역을 조차한 이후 여순은 태평양 함대의 해군 기지로 육성하는 한편, 대련만 연안 지역에 자유 무역항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금주는 청나라 시대부터 말단 행정기관이 설치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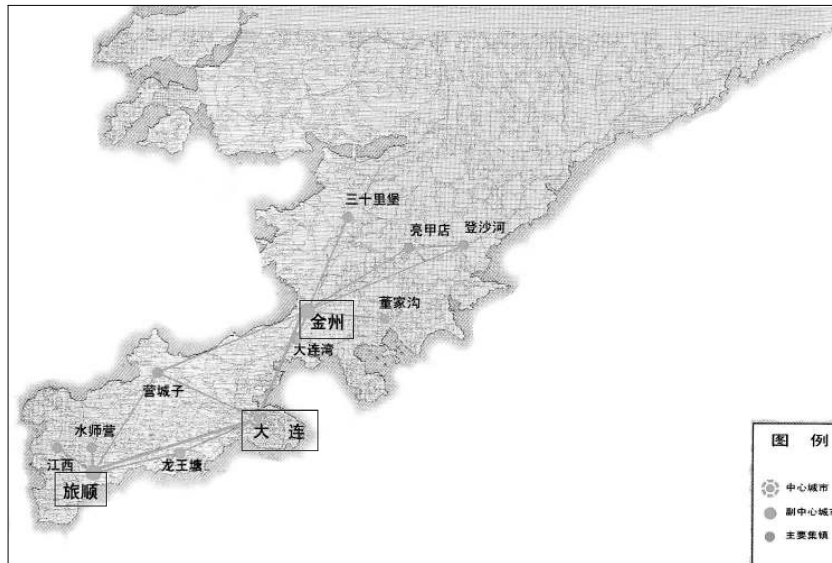


그림 8. 대련 지역 현황 (1900-1980년, 董伟 2005:68)

대련만 지역 러시아의 도시 계획은 겨울에도 얼지 않는 자유 무역항을 건설하는 것이었다. 자유 무역항의 인프라로 가장 중요하게 설치된 것은 철도와 항구의 개발이었다. 이 지역 도시 공간 계획은 크게 3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서 처음부터 시작이 되었다. 유럽인 지구, 행정구, 중국인 지구가 그것이다. 유럽인 지구에는 상업구, 시민구, 별장구, 공원이 혼합된 공간으로 설계가 되었다. 반면 중국인 지구는 유럽인 지구와 공원을 중심으로 분리된 외곽에 계획이 되었다. 러시아는 도시의 중심에 광장을 배치하였고 방사성으로 10갈래의 도로를 만들었다. 이러한 도시 계획 방식은 당시 러시아가 18세기 런던재건계획과 19세기 중반의 파리개조계획의 선진적인 도시 계획 기법을 적극 수용하고 있었다.



그림 9. 러시아 대련항 계획도(刘长德 1999:44)

대련 지역 새로운 자유 무역항의 건설은 도시의 공간 구성을 살펴보았을 때 러시아인을 위한 도시를 만들어나갔다. 1903년 1월 총인구통계에 의하면 이 지역에 러시아인이 3,013명, 일본인과 조선인이 307명, 기타 외국인이 80명, 도시지역 내의 중국인이 26,439명, 도시지역 외의 중국인이 11,321명으로 기록되어 있다(大連市史 1936:114-204). 이러한 인구의 수치로 판단해 볼 때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다. 도시가 건설 되기 전에 이 지역의 중국인 인구수가 60여 가구 수준으로 한 가정을 4-6인으로 잡는다고 해도 240-360명 정도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러시아가 이 지역에 들어온 후 5년이 지난 시점에 도시지역 중국인 인구가 26,439명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이는 대련 도시 공간이 러시아인을 위주로 한 공간 구성이 되고 있지만, 상업 공간이나 항만 공간의 노동력은 대부분 중국인들이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게 해준다. 대련 도시 개발은 엄청난 속도로 인근 산둥과 하북 지역 중국인 인구를 흡수해나갔다. 러시아가 구성한 도시의 공식적 공간은 비공식적 주민들인 중국인의 서비스를 통해서 유지가 되고 있었다.

1904년 러일 전쟁이 일어난 이후 일본이 서양 세력을 물리침으로써 한반도와 대련지역에 대한 권한을 차지하게 되었다. 러일전쟁은 세계무대에 일본이 제국주의 열강으로 등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러시아와 「포츠머스조약」을 맺은 후 이 지역을 중전의 러시아식 이름인 ‘다르니 Dalny’에서 ‘대련(大連)’으로 개명하였다. 당시 대련 지역의 가장 핵심적인 권력 기관으로 군사 기관인 관동총독부[1906년 관동도독부로 변화]와 정경 복합체인 만주철도주식회사가 있었다.

일단 일제 시기 도시의 전체적인 모습을 검토해 보면, 1905년 이후 초기에는 일본이 기본적으로 러시아의 도시계획을 답습하여 구행정시가 및 유럽시가를 일본인 거주 지구와 군용 지구로 활용하였고, 중국인 거주 지구는 러시아 시기의 계획대로 현재의 서강구(西崗區)에 설치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군용 지구는 민간 생활부지로 개방되었고, 도시의 서쪽에 만철의 공장과 사택이 건설되었다. 1919년 본격적으로 시 영역을 확장하고 시구 계획, 지구 구분 등이 이루어지는데, 지구 구분은 주택지구, 혼합지구, 공장지구, 상업지구로 구분이 되었다. 각 지구들 사이에는 광장과 공원 등과 같은 공공 공간이 배치가 되었다.



그림 10. 일제시기 도시 확장 구조(李— 2007:15 참고 재구성)

대련 지역이 러시아의 경우에도 원래 전통적인 공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쟁에 패한 후 러시아인들은 거의 자국으로 돌아갔고, 일본이 그대로 러시아가 개발한 도시 공간으로 진입을 할 수 있었다. 인구의 이

동으로 볼 때, 이 지역의 중국인은 그대로 있었겠지만 대련의 지배층은 러시아인에서 일본인으로 전환되었다. 비록 러시아의 도시 계획을 그대로 이어서 일제가 도시를 재편성해 갔지만 기존 러시아식 도시 구성물의 이름은 일본식 바뀌었다. 중심 광장은 니콜라예브스키 광장에서 대광장으로 변화하였고, 도시의 구역도 ‘정(町)’으로 구분이 되었다.

대련에서 중국인 주거지역이 러시아 시대에는 분리(segregation)가 비교적 엄격하게 이루어진데 반해서 일제가 들어오면서 일본인 거주 지역에 중국인 거주가 일부 허용되었다. 일제는 대광장 남쪽의 도시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경관을 볼 수 있는 극장을 만들어 중국인 이주를 유치하기도 하였다. 대련 서부 도시화는 두 가지 계기가 있었는데, 하나는 대련 남산에 거주하던 노동자를 소강자(小崗子)로 이주시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사하구(沙河口)에서 만철공장 직원들의 집거지역을 조성하는 것이었다(우영만 2001:38).

이렇게 일본에 의해 근대적인 도시가 확장되면서 인구 규모도 급격히 증가 하였다. 인구 증가의 큰 특징은 중국인의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연 증가보다는 산둥과 허북 지방으로 부터의 임노동자의 증가 현상이 가장 큰 이유가 되었다. 일본인 인구는 서구 식민 도시와 비교해 보았을 때, 지배층 치고는 인구가 많았는데 일본 사회의 다양한 계층이 모두 대련에 진출해 있었기 때문이다.

년 도	인 구			
	일본인	중국인	외국인	합계
1906	8,349	30,524	22	38,896
1907	16,923	40,348	54	57,325
1916	41,620	98,787	77	140,484
1920	53,994	175,721	152	138,874
1926	80,854	203,852	425	285,131

표 5. 대련 관할 인구 현황 (『大蓮要覽』 1928:21)

대련은 중국 전통 사회의 영향력에서 다소 벗어난 변방지대에 속하였다. 식민화 이전에 제국주의 국가들과 대련 지역 간의 전통적 관계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새로 만들어지는 자유 무역항 대련은 요동 반도라는 좀 더 큰 지역에서 생각해 볼 때 토착사회의 지역간 불균형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일본이 대련을 개발 하면서 상대적으로 토착 사회의 중심이었던 금주는 낙후되고 있었고, 대련으로 자원 및 인구 집중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전 요녕성 중심항구였던 영구(營口)와 같은 곳은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오히려 대련만 지역의 식민 도시화 현상은 제국주의가 조성한 도시 공간이 다시 이 지역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대련의 경우 청나라 정부가 쇠퇴한 이후 공산당 조직과 국민당 조직의 성장으로 중국 정부와 대련 중국인 사회의 연결점은 상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국이 식민화된 부산과는 다른 차이를 보인다. 구체적으로 그 차이들은 근대적으로 재편성된 두 항구 도시 내부의 지배자와 피지배자 간의 사회적 관계에서 표출되고 있었다.

3) 지배-피지배 공간의 분리와 통합

부산 지역에서 보이는 도시 공간의 확장 양상은 전통적인 동아시아 질서 속에서 한국과 일본이 맺고 있던 관계의 공간인 왜관을 중심으로 근대적인 행정공간, 상업공간 등의 분화로 점차 확대되고 있었다. 19세기 초까지 한국인이 구성한 동래부의 행정 질서 속에서 피지배의 공간으로 남아 있었던 왜관은 19세기 후반부터 그 위상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이러한 위상의 변화는 부산 지역 차원에서 설명이 불가능하다. 전통적인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하마시타 다케시(濱下武志)의 지적처럼 ‘조공 외교’의 관점에서 이해한다고 하였을 때, 일본의 제국주의화는 기존의 ‘조공 외교’의 붕괴와 함께 새로운 국제 질서 속에서 일본 위상이 변화함으로써 부산에서 기존 전통사회에서 볼 수 없었던 공간적 질서를 조직화하고 있었다.

강화도 조약이후 왜관이라는 피지배의 공간은 역으로 일본인전관거류지라는 독립된 공간을 설정함으로써 오히려 지배의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부산 항구 도시의 건설이 초기에는 지리적으로 한국의 전통 공간과 분리된 형태로 확장되고 있지만, 한일 합병이후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반영되어 있는 것처럼 부산부로 확장된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형성된 개항장의 사회적 공간은 지리적 영역을 넘어서 다양한 수준의 연결망으로 이어져 있다. 일제의 시선은 이미 독립된 한 지역에 대한 관리를 넘어서 일본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적 요청에 상응하는 지역 체계로 부산을 변화시켜나가고 있었다. 정치적으로 식민 당국의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경제적으로 항구 건설과 함께 전세계적 물류의 흐름과 연동시켜나갔고, 문화적으로 근대 교육 기관 설립을 통해 피지배자를 계몽시키고자 하였다.

1911년 부산민단구내 일본인 인구가 25,641명에 이르고 부산민단관내 조선인 인구가 22,510명이었다(釜山要覽 1012:12-14). 원래 일본인 거류지에는 조선인이 적었지만 도시가 형성된 이후 다양한 직업 활동을 위해 점차 유입이 되고 있었다. 한일합병 전후 부산민단관내 조선인들의 인구와 직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년차 직업	1909	1910	1911
관공사	49	48	23
양반	16	16	6
유생	-	-	2
상업	1,367	1,442	1,166
농업	1,088	1,059	1,424
어업	400	482	770
공업	91	91	130
광업	17	4	4
일용 노동	842	861	871
기타	352	204	189
무직	95	69	54
계	4,312	4,276	4,639

표 6. 37년 부산민단관내 조선인직업 상황(釜山要覽 1911:14 근거)

이러한 직업 상황을 보면 조선인이 일본 통치 기구에 참여하고 있는 관공사도 있고 조선의 전통적 신분의 지표가 되는 양반이나 유생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상업 인구나 농업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높고 향만이나 철도의 물류와 관련된 일용 노동자의 수도 상당한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일본인의 분류 관점도 흥미로운 점인데 양반과 유생을 직업의 분류에 넣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일본인이 중심이 된 민단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직업 활동들은 지배와 피지배라는 고정된 관계로만 사회적 관계를 연상하는 것이 얼마나 허술한 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점은 사회조직의 검토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조선실업동지회의 경우 1909년에 조직되어 한일 합병 후에 조선인과 일본인간의 친목을 다지고 부산항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으로 월 1회 차를 마시며 담화를 가지며, 매년 봄, 가을에 총회를 개최하였다(『釜山要覽』 1911:343). 조선인을 포함한 총 인원이 120명이다.

일본의 지배는 점차적으로 공간적인 확장을 통하여 일본인이 활동할 수 있는 지리적 영역을 늘어나고, 조선인들은 기존 전통 사회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새롭게 만들어진 도시로 유입되어 상업 활동과 일용 노동 등 근대 사회의 직업 활동을 경험하게 되었다. 부산은 전통적으로 조선인들의 거주 인구가 있었기 때문에 거주지에 따른 지배자와 피지배자간의 삶의 공간의 분리는 확연히 나타나지만, 도시 내부의 직업 활동 속에서는 오히려 근대적인 상업 및 노동 활동으로 삶의 양식이 일부 통합되어 가는 측면도 있었다. 근대적인 삶의 양식의 변화를 일본적인 것으로 간주하기 보다는 전지구적 차원의 변화와 맞물려 나타나고 있다는데 앞으로의 분석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련 지역의 경우 전통적으로 중국 청정부의 행정 구역 바깥에 위치해 있던 곳으로 1888년부터 1893년 동안 외세에 대한 방어를 위해 북양함대와 시설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산동의 등주(登州), 차주(萊州) 연안 일대의 민공(民工)들이 모여들면서 인구가 성장하였다(黃海燕 1996:85). 1898년 여순의 인구가 약 2만명 정도 되었다. 러시아가 도시를 새로 건설하면서부터 더 많은 민공들이 자유 무역항이 건설되는 대련만 지역으로 모여들었다. 이렇게 이주해온 산동과 하북 사람들은 그대로 대련에 머물면서 인구는 급격한 성장을 보였다. 새로 개발되기 시작한 대련의 인구 증감은 1904년 1.7만 명에서 1945년 약 70만 명까지 늘어났게 되었다.

부산의 경우 1899년 16,572명(『東萊府邑誌』 1899)에서 1945년 28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인구의 증감은 두 지역에서 모두 국내 이주의 증가로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대련으로 온 대부분의 인구는 임노동자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은 부산의 경우 전통적으로 상존하는 인구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인들 사이의 전통적 관계의 특성이 대련의 중국인들보다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당시 대련에 유입된 하층 중국인들은 대규모 도시 건설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향만을 비롯하여 마차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임노동에 의존하면서 살아갔다. 사회적으로 범죄율도 증가할 수 밖에 없었는데, 1927년 범죄인원 기록(『大蓮要覽』 1928:144)에 의하면 중국인 절도범의 수가 2,242명에 이르고 있는 것을 볼 때 생계형 범죄가 많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같은 해 일본인 절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107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대련에서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공간 분리는 초기부터 식민지 정책으로 실현된

도시 조성단계에서 부터 나타나고 있었다. 가장 큰 원인은 도시 계획상 반영된 대부분의 공간은 제국주의 지배 민족을 중심으로 한 공간 구성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 지역의 중국인들이 전체 중국 사회에서 신분적으로 낮은 계층에 속하는 노동자들이 많았던 것도 그 원인이 된다. 그러다 보니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잡업 계층이 살 수 있는 집들이 도시 중심에서 약간 벗어난 곳에 다양한 형태로 생길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일제는 위생 및 치안의 이유로 중국인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을 관리하고 있었다. 물론 중국인들이 모두 임노동의 형태로 일하는 것은 아니었고 상업, 농업, 어업, 염전 등의 직업군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리고 전력 소비에 대한 『大連要覽』 통계 자료를 통해 볼 때도 중국인들 중에 집안에 전기를 쓰는 계층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소수의 중국인들은 거주지를 마음대로 정해서 살 수 있었지만 극소수였다.

부산과 대련에서 일본인 사회의 특징은 일본인 상류층에서부터 하층민에 이르기까지 일본인 사회의 표본이 그대로 새로운 지역에 이동하면서 살고 있다는 점이다. 서구 식민지의 경우 주로 통치자들 위주로 식민 사회에서 활동했던 것과는 그런 면에서 차이가 난다. 그러다 보니 두 항구 도시에서 일본인 사이의 계층 간 생활 격차도 자연스럽게 나타났다. 부산이 일본과의 전통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던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도시 공간의 개발 과정이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한국에서 일본의 도시 계획은 일본 본국에서 이루어지는 도시계획 방식과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즉 시구개정사업, 가로망 건설 계획 등이 기존의 전통 공간과의 연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대련은 중국의 지리적 이유와 인구 밀도가 희박한 점 때문에 도시 계획을 처음부터 대규모로 실시할 수 있었다. 러일 전쟁 이후 대련의 도시 건설에서 원래 토착 주민과의 마찰의 여지가 적었기 때문에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중국인 거주 공간은 러시아 시대에 설정한 서강구 지역을 중심으로 일본이 설치하였다. 하지만 도심에 중국 하층민들이 거주하는 비공식적 공간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4. 식민 공간 재편성과 사회적 변화

한국 부산과 중국의 대련은 지리적으로 일본 본토와 가까운 편이고, 이 지역이 식민화 되면서 벼농사, 공업 등의 전개로 일본과 비슷한 경제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본인들의 이주가 서구 식민지의 지배자 보다 많았다. 식민지기 도시화는 두 항구 도시에서 마찬가지로 인구의 이동을 촉진 시키고 있는데 이는 점차 임노동자의 사회적 유동 상태가 높아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식민 도시화와 함께 대거 모여 든 임노동자들이 도시의 하층 잡업층을 형성하면서 도시 비공식 부문이 함께 나타나고 있었다.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그들의 거주 공간 및 활동 공간을 식민지 도시화된 구역에 두었다. 그러다 보니 식민지 도시 인구에서 차지하는 일본인의 비중은 높았다. 일본인 도시 거주자 중에서는 식민지 지배자 뿐만 아니라, 상공업자나 무직자도 많았고 여성의 비율도 높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일본의 도시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일본인 사회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특징을 보인다(하시야 2005:74).

	주민의 민족별 구성(%)		민족별 도시집중도(%)	
	일본인	피지배민족	일본인	피지배민족
조선 전지역 (1939) 도시	2.9 15.5	96.9 83.7	56.5	9.0
만주 전지역 (1939) 도시	2.1 12.7	94.5 82.9	11.0	1.2

표 7. 식민지에서 일본인의 도시 집중도(하시야 2005:73 참고)

하지만 이러한 식민 도시를 중심으로 한 일본인 사회가 구조적으로 기존 피지배 전통 사회에 대한 억압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민족 관계로 보았을 때 지배 민족과 피지배 민족 간의 이중 구조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었다. 부산에서 이러한 이중 구조는 대련에서 보다 좀 더 심화될 여지가 있는데 왜냐하면 기존 부산 지역의 토착 전통 신분 사회와 새로운 일본 식민지 계층 사회의 충돌 여지가 대련보다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새로운 상황 변수는 한국이 전국이 식민화 되었고 당시 국가의 통치 질서가 일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적으로 제한된 식민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대련의 경우 중국 정부의 영향력이 전통적으로 거의 크게 미치지 않고 있는 지역이지만, 근대 이후 중국 중앙의 정치세력과 항상 조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갈등의 요소로 떠올랐다. 중국의 동북 지방에 있어서 이러한 민족 갈등의 요소는 아이러니하게도 산동성 및 다른 지방으로부터 이동해 온 대규모 중국인 임노동자들이 식민 도시에 일종의 계층으로 집단화되면서 중국의 정치 세력과 연동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다.

1) 초기 토착 사회의 재편성 양상

한국의 식민화에서 일본의 식민지 정책은 시기별로 변화를 하고 있었지만 동화정책이 기초를 이루고 있었다. 창씨개명이나 일본어 국어 교육 등의 문화 정치가 그러한 관점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전통적인 한국의 사회적 구조를 양반과 상민으로 대표되는 신분 구조로 보았을 때, 일제의 식민 도시를 중심으로 기존 신분제 질서와는 다른 이질적인 계층이 나타나고 있었다. 물론 농촌에서도 지주-소작 관계를 통해서 신분 관계와는 상관없이 신흥 부유층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측면은 전통 신분 사회와는 다른 토착 사회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한국에서 식민 도시의 개발이 기존 지역 사회의 권력층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공간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각 지역 별로 전통적으로 권력을 지닌 사족들의 거주 공간이 읍성으로부터 지리적으로 떨어진 외지에 입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기존 읍성이나 일제의 도시가 건설되는 공간과 구조적으로 분리된 상황이 연출되었다. 그러다보니 직접적인 주거 공간에 대한 저항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식민지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직업 활동을 포함한 경제활동 그리고 관공서 등의 행정 활동에 토착 사회의 상류층이 참가하지 않는 경우 그들의 미래는 불확실하였다. 그래서 몰락하는 양반들도 생겼고, 근대 교육을 통해서 과거 신분이 보장해준 사회적 지위를 지속적으로

로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향촌 사회의 신분의 구속에 묶여 있었던 노비 계층을 비롯한 하층민들은 더 이상 토지에 매여서 소작을 하지 않더라도 도시의 임노동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들에게 식민 도시의 불리한 구조적 조건들은 기존 신분 사회에서 받던 억압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상태를 경험하게 해 주었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과거 전통사회에서 영속적 고리로서 신분적 억압은 평생을 벗어나기 힘들었던 반면, 도시에서의 삶은 임노동이 반복되더라도 기존의 신분적 속박을 벗어나서 생활할 수 있는 또 다른 조건을 제시해 주었기 때문이다.

한국 전체가 식민화 되었다는 것은 부산 지역에서 중심적인 도시 활동이 식민 본국의 통제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대련 지역과 비교하였을 때, 문화 통치의 식민 경영 기법들이 교육이나 황민화 정책, 창씨개명 등으로 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은 기존 전통적 엘리트 집단들과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측면이 있었다.

대련 지역의 경우 오히려 이 지역에 중국 전통적 엘리트 집단이 희박하였고 문화 통치가 대련 지역에 한국만큼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련은 중국 동북지방의 중심 항구도시로 성장함과 동시에 1931년 만주 사변 이전 중국 대륙 침략을 위한 예비 조사의 전초기지가 되었다. 또한 피지배 중국인 계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둥 및 허북에서 이주해온 노동자들은 이미 자신들의 고향에서 열악한 환경을 경험하고 그곳을 빠져나온 사람들로 대련에서 항만의 일용노동, 만철 및 각종 산업 노동이 고되었지만 과거에 경험한 고향의 상황보다 나은 것으로 받아들여졌을 수 있다. 초기에는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이주해온 그들의 일차적인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배-피지배의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이나 중국에서 식민 도시가 형성된 후 일본인과의 새로운 사회적 관계가 정착되면서 피지배 민족이 중심이 된 노동자 계층들은 점차 그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게 되었다. 토착 사회의 공산주의, 민족주의 세력들과 항구 도시의 토착인들과의 연계도 점차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2) 식민화 이후 토착사회의 갈등

부산과 대련의 식민 도시화는 일차적으로 일제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항만이라는 입지를 통해서 식민지 생산물의 유출 경로로서 그리고 일본 상품의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서 이해할 수 있다. 전지구적 차원에서 생산과 소비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활동의 양상은 부산과 대련에서 움직이는 상품의 소비지를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 부산에서 수출입이 이루어지는 상대국은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홍콩, 필리핀, 남인도, 영국, 터키 등 다양한 국가들과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釜山要覽』 1912:181-183). 대련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본, 영국, 미국, 독일, 중국의 다른 항구와의 물류의 이동이 지속되고 있었다(『大連要覽』 1928:172). 즉 자원의 유통은 전지구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러한 상황은 전통 사회의 부산과 대련의 성격과 분명히 구분되는 변화들이었다. 항구의 발달은 물류의 이동 뿐 만 아니라 일본과 한국 및 중국 간 인적인 이동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한편 식민 도시의 전개가 경제적인 목적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식민 지역의 사회적 통제 문제까지 결합되어 있었고 식민 본국과의 끊임없는 통합 노력이 이루어지면서 기존 토착 사회와의 갈등의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3·1운동 직전 부산부의 인구가 한국인이 32,846명이었고 일본인이 28,012명으로 일본인이 비율이 전국 다른 지역보다 월등하였다. 부산 시사에 의하면 그러한 이유로 일본인의 사회경제적인 수탈 및 지배와 횡포는 이 지역에서 극심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부산시사』 1989:1002). 부산 지역에서 일본에 대한 대표적인 저항은 1915년 변상태, 윤봉구 등이 노동자와 함께 일본인 집을 습격하고 방화하는 활동을 벌였다. 그리고 백산상회의 경우 동광동 3가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1918년 이후에 상해임정계와 연결해서 독립 자금을 조달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항일 운동이 동래, 구포 등지를 중심으로 나타났는데, 공간적으로 부산의 전통 공간이 중심이 되고 있었다. 부산 지역 저항 활동의 특징은 점조직 형태로 다른 지역 독립 활동가들과 연결된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많았다. 또 한 가지 특징은 공장노동자들의 쟁의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식민 지배층에 대항한 항일 운동으로 이전까지 많이 다루어지고 있지만, 도시 생산 노동자 계층의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대표적인 공장 노동자 쟁의는 항만 노동자들이 1919년부터 1937년까지 등 항만 노동자, 인쇄 노동자, 고무공장, 방직회사, 개축공사장 등에서 임금체불, 임금인상, 임금인하 등과 관련해서 노동 쟁의를 하고 있었다(부산시사 1988:1020-1023).

대련 지역에서도 일제에 대한 저항은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 특히 중국인 노동자 계층이 많았기 때문에 대련 지역의 저항은 파업의 형태가 가장 눈에 띈다. 대련 항만, 여순해군수리공장, 만철 대련 사하구 공장, 대련기계제작소 등지에서 파업이 일어났다. 대련 파업은 2가지 점에서 흥미롭다. 하나는 이러한 노동자 계층의 노동 쟁의와 파업 활동이 당시 중국 공산당 조직과 연계가 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일본인 노동자가 함께 일하는 곳에서는 일본인 노동자와 연합해서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1920년 5월 만주철도주식회사 사하구 공장에서 5,000여명의 중국인 노동자와 일본인 노동자는 연합해서 40일간 파업 투쟁에 들어갔다(『大连市志』 2001:303-305). 당시 이러한 일본인 노동자와의 연합 투쟁은 대련시지에 의하면, 국제 노동자 운동사상 의미 있게 평가된다고 한다. 당시 이러한 파업 경험은 대련 지역의 이후 노동 쟁의나 파업의 중요한 경험이 되었고 중국 노동자 단체의 기초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대련에서 저항은 이렇게 노동자 계층을 중심으로 파업 형태의 저항이 가장 심하였고, 이것은 이념적 형태의 저항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 노동자 계층의 생활 향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같은 입장을 가진 일본인도 함께 동참하여 파업을 하는 양상을 보인 것 같다. 당시 일본인이라고 하더라도 하층 노동자의 삶은 식민도시에서 고단하기는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이러한 민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계층적인 유대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물론 1921년 중국 공산당 성립이후 정치 조직과의 연계가 대련 지역에 지속적으로 시도되는 양상이 보인다. 그리고 다른 변화는 노동자 계층이 단체를 조직하고 공동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공학회(工学会)가 조직되면서 중국인 노동자 중심의 계층 문화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었다.

5. 결론

본 연구에서 식민지 시기 한국 부산과 중국 대련의 식민 도시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방식을 각 토착사회의 맥락에 따라서 어떻게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19세기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 경영 방식은 각 나라마다 서로 다른 양식을 보이고 있다. 더군다나 하나의 일본 제국주의라도 한국, 중국 그리고 대만에 대한 식민지 경영 방식이 동일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다. 기본적으로 당시 일본 산업 자본주의의 재편성 과정 속에서 각 식민 지역의 역할 규정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도 그 이유가 되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식민 지역 토착 사회의 맥락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부산은 조선시대에 동래읍성을 중심으로 해안에 군사 시설을 갖춘 지역으로 당시 왜관은 조선의 통치 제도권 내에서 허가된 일본인들의 집거구에 불과하였다. 당시 동래부 공간을 지배하는 질서는 조선 왕조의 행정질서였지만, 일본 제국주의의 확장으로 나타난 양상은 기존의 지역 구도를 바꾸어나갔다. 일본이 강화도 조약 이후에 조선 전체의 행정력을 장악하게 됨으로써 부산에서는 과거 왜관이 설치된 지역을 중심으로 일본인을 위한 도시개발이 진행되었다. 일제가 근대 항만 도시로 부산을 건설하는 동안 이 지역의 공간의 주체였던 조선인들은 점차 소외되기 시작했고 조선의 행정력이 설정한 공간의 힘은 소멸되기 시작했다. 식민화 이후 오히려 일본인이 건설한 도시 중심부가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러한 부산의 공간 재편성 과정의 특징은 토착 전통 공간을 그대로 두고 원래 일본인이 중심인 공간을 도시로 개발하면서 토착 사회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측면이다. 하지만 1914년 행정개편이후 일제는 도시 확장을 통해 기존의 토착 공간을 그들의 도시 계획으로 포함해 변화시키고 있다.

대련은 중국 전통 사회에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한 변방 이었고, 청나라의 행정 시설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소규모 어촌에 불과하였다. 19세기 제국주의 침략에 대항한 군사시설이 여순에 설치가 되면서 점차 이 지역 중국인 인구가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러일 전쟁 이후 여순 지역에서는 일본인이 진입하면서 당시 미국판 <The World> 신문 크릴만(James Creelman)에 의하면 2,000천명 이상의 민간인 사망자가 생겼다고 한다. 일본의 중국 진출은 전쟁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력이 앞서 있었다. 최초 러시아가 그 후 일본이 집중적으로 도시를 건설하고 있는 대련만(灣)의 자유 무역항은 초기 토착인구가 미미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토착 사회와의 갈등을 상대적으로 줄이면서 전체 공간에 대한 근대 도시 계획을 수립을 하고 항만 도시를 건설할 수가 있었다. 그러다 보니 도시의 전체 면적이라든지 건축물의 규모는 부산보다 크고 화려함을 자랑했다. 요동 반도의 전통적 행정 중심이었던 금주는 쇠퇴해 갔고, 청나라 무역상이 많이 왕래하였던 영구항의 경제도 자유 무역항 대련이 생기면서 쇠퇴하게 되었다.

두 도시에서 식민 공간의 형성은 일본과 맺고 있었던 상호 관계의 유형, 전통 사회의 성격, 지리적 위치 등의 맥락에 따라서 같은 일본 제국이 도시를 건설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다. 부산의 경우 전통적인 토착 사회가 주거지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본다면 일본인과 분리되어 있었지만, 새로운 도시 공간의 다양한 직업 활동의 측면에서 본다면 점차 서로 다른 민족 간의 활동이 결합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토착 사회 엘리트의 존재는 민족주의와 연계된 사회 활동을 부산 지역 내에서

지속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하지만 대련의 경우 기존 토착 사회가 부재하였고, 산동 및 하북 출신의 노동자가 도시의 토착인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게 전개되었다. 토착 지역 사회 세력의 부재는 시간이 지나면서 대규모 공장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점점 집단화된 계층으로 성장을 하고 있었다. 이들 노동자의 초기 저항 형태는 민족주의적 형태보다는 일본 노동자와 결합하여 자본가에 대항한 계층적 저항의 성격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후 중국 공산당 조직이 결성되면서 정치적인 활동, 민족주의에 대한 열망이 점차 확대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초보적인 수준에서 동일한 제국에 의한 두 지역의 도시 조성에서 나타나고 있는 맥락을 정리해보고자 하였다. 앞으로 좀 더 진전된 동아시아에서 식민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의 두 지역의 식민 상황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향후 식민 도시의 경험이 현재 이 지역의 도시개발과 도시 정체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탈식민 이후 중국이 사회주의 체제의 길을 선택하고 한국이 산업 자본주의의 길을 걸으면서 두 식민 도시의 변화가 어떻게 국가의 상이한 이념 형태와 결합되어서 변화를 겪고 왔는지에 대한 주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 문헌

- 김의환, 1970, 『부산지방의 지명의 유래(부제: 부산시 형성과 그 성격)』, 대화출판사.
- _____, 1973, 『부산근대 도시형성사 연구』, 연문출판사.
- _____, 1973 『부산의 고적과 지명』, 부산시.
- 노영순, 2004, 「프랑스의 식민주의와 베트남 지배구조」, 『일본과 서구의 식민통치 비교』, 선인, pp.145-180.
- 박해양, 2001, 『부산의 도시성장과정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박사논문.
- 부산시사편찬위원회, 1991, 『부산시사 1권~4권』.
- 손정목, 1990, 『일제강점기 도시계획연구』, 일지사.
- 서민주, 1998, 『1930년대 요동반도의 도시 노동상황과 근교농촌』, 한양대 석사학위 논문.
- 신주백, 2004, 「일본의 '동화' 정책과 지배전략·통치기구 및 학교교육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일본과 서구의 식민통치 비교』, 선인, pp.217-286.
- 우영만, 2001, 『中國 大連市 都市成長과 土地利用計劃의 特性에 관한 研究 1899년~1945년의 도시계획을 중심으로』, 인하대 석사논문.
- 장익수, 2002, 『중국 랴오닝성 따리엔시의 탈식민 도시 공간에 관한 연구』, 인하대 도시설계 석사논문.
- 부산시립박물관, 2007, 『사진 엽서, 부산의 근대를 이야기하다』 도록.
- 최정수, 2004, 「미국의 필리핀 지배전략과 자치화정책」, 『일본과 서구의 식민통치 비교』, 선인, pp.181-216.
- 하시야 히로시, 2005, 『일본제국주의, 식민지 도시를 건설하다』, 모티브.
- 호리 가즈오·나카무라 사토루 편저(박삼·장지용 옮김), 2007, 『일본 자본주의와 한국대만』, 전통과 현대.
- 大連市役所, 1936, 『大連市史』.
- 大連市史志办公室, 2001, 『大連市志』.
- 唐功春 主编, 2004, 『旧明信片中的 老大连』, 文物出版社.
- 方军·王胜利 主编, 1999, 『大连近百年风云图录』, 辽宁人民出版社.

- 黄海燕, 1996, 「近代大连地区的人口变迁与社会发展」, 『辽宁师范大学学报(社科版)』.
- 满史会编, 1963, 『满洲开发四十年史』上下 券.
- 董伟, 2005, 『大连城市空间结构演变趋势研究』, 大连海事大学出版社.
- 刘长德 主编, 1999, 『大连城市规划100年』, 大连海事大学出版社.
- 大連民政署, 昭和3年(1928), 『大連要覽』, 大阪屋號書店.
- 釜山商業會議所, 大正元年(1912), 『釜山要覽』, 三秀舎.
- 韩悦行 외, 1999, 『大连近百年史见闻』, 辽宁人民出版社.
- 李一, 2007, 『大连城市轴线的空间解读』, 同济大学硕士学位论文.
- 滿鐵經濟調査會, 1934, 『滿洲の苦力』, 大連.
- 濱下武志, 1990, 『近代中国の国際的契機—朝貢貿易システムと近代アジア』, 東京大出版者.